

1. 정답 ④

'-르뽀뽀'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를 뜻하는 부사이므로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①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선 때.'를 뜻하는 '먼저'와 의미가 중복된다.

② '오로지'는 '오직 한 곳으로.'를 뜻하는 부사로,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과 의미가 중복된다.

③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를 뜻하는 '각각'과 의미가 중복된다.

(참고: ④의 '바를 뽀뽀'는 '바를뽀뽀'로 붙여 써야 한다.)

2. 정답 ①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발송된 사건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가 미비함'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②

'이 부장'의 발언은 약속 시간에 늦은 '김 대리'가 미안해 하자 그가 미안함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하기이다. 이를 '요령의 격률'이라고 하는데, 요령의 격률이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라는 것이다.

① '동의를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동의를 격률이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③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관용의 격률이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④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찬동의 격률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4. 정답 ①

'하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노라고'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하다.

•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가 끝나다.'를 뜻하는 '결제되다'를 써야 한다.

• 결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③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를 뜻하는 '겉잡다'를 써야 한다.

• 견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④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를 뜻하는 '갈음하다'를 써야 한다.

• 가름하다: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5. 정답 ③

'미나라가 푸르고~감자는~구린내 혹은 풍겼지요'에서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와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에서 '쌈'을 매개로 서로를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가 어린 시절에 고향 마을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

④ '있었지요', '했었구요' 등 구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6. 정답 ③

해당 지문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쉽게는 먹이가 자신에게 해염쳐 오게 하는 것부터,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여 먹이를 구하는 것까지 동물들이 환경을 개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하며, 인간 역시 이처럼 환경에 대해 적응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해당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① 2문단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지만, 전체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④ 해당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7. 정답 ②

B사에게 밀렸던 A사가 업계 1위 자리를 도로 차지했다는 내용으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살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② 권토중래(捲土重來):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 두목의 <오강정시(烏江亭詩)>에 나오는 말로, 항우가 유방과의 결전에서 패하여 오강(烏江) 근처에서 자결한 것을 탄식한 말에서 유래한다.

③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8. 정답 ①

'머무르다'의 준말 '머물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머무르다'의 활용형인 '머물렀다'로 써야 한다. 이때 '머무르다'는 어간 '르'가 'ㄹ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② '머무르면서'는 '머무르다'의 어간 '머무르-'에 어미 '-면서'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적절하다.

③ '서툰'은 '서툴다'의 어간 '서툴-'에 어미 '-ㄴ'이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적절하다.

④ '서투르므로'는 '서투르다'의 어간 '서투르-'에 어미 '-므로'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④

1문단의 '사진은~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에서 통념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주장은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④이다.

① 필자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필자는 회화와 사진을 구분하여 사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③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의미의 한자는 '투기(投棄)'이다.

① 유기(遺棄 남길 유, 버릴 기): 내다 버림.
遺: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辵(=辵)→쉬엄쉬엄 가다)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貴(귀할 귀→많은 보배→재산→가진 것→유)로 이루어짐. 물건(物件)이 어디로 가버리다→잃는 일의 뜻으로 쓰임.

棄: 마늘모(艹→나, 사사롭다, 마늘 모양)부와 棄(기→쓰레기)와 卩(공→양손)의 합자(合字). 청소 도구(道具)를 양손으로 밀고 감을 나타냄. 따라서 널리 버림의 뜻.

② 근절(根絶 뿌리 근, 끊을 절):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

根: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나무)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艮(그칠 간→근)이 합(合)하여 「뿌리」를 뜻함.

絶: 실사(糸→실타래)부와 卵의 오른쪽 부분(部分), 刀(도→날붙이→자르는 일)의 합자(合字). 실이 끊어지다→실을 끊다.

③ 투기(投棄 던질 투, 버릴 기): 내던져 버림.

投: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扌(=手)→손)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ㄷ(뫼동이 수→투→치다)로 이루어짐. 손으로 던지다의 뜻.

④ 포기(拋棄 던질 포, 버릴 기):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 두어 버림.

拋: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扌(=手)→손)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尢(포)가 합(合)하여 이루어짐.

11. 정답 ①

'꼭혀지다'는 용언의 어간 '꼭-'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미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인 것은 맞으나 주어 '리셋 증후군'과의 호응을 고려할 때 '꼭히고'로 수정해야 한다.

② 중심 화제의 유래를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막다른 골목'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을 이르는 말. '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데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앞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정답 ②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는 교훈을 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때 적절한 표현이므로 제시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④

지문에서는 사물을 '빛이 새하얗다', '문사(文士)와 더불어 노닌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선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해당 글이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종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은 이첨의 '저생전'으로, 저(楮)는 종이의 재료인 닥나무이며, 저생(楮生)은 종이를 의인화(擬人化)한 것이다. 주인공 저생(楮生)은 이름이 백(白)인데 백이란 희다는 뜻이며, 자는 무점(無玷)으로, 아무런 티가 없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저생은 무인(武人)은 좋아하지 않고, 문인(文人)과 어울려 놀며, 모학사(毛學士)가 가까운 친구인데, 모학사란 곧 붓을 의미한다.

14. 정답 ③

'쉬어. (음악과 춤 멈춘다.)'에서 말뚝이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을 풍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야아, 이놈, 뭐야아!'에서 양반들이 말뚝이를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다.
- ②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③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에서 알 수 있다.

15. 정답 ②

'내'는 '일정한 범위의 안.'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서 적어야 한다.

- ① '...도 ...도' 구성으로 쓰이는 '-도'는 보조사이므로, '해도 v해도'와 같이 띄어서 적어야 한다.
- ③ 해당 문장에서 사용된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대접하는v데나'와 같이 적어야 한다.
- ④ '정공법밖에'에서 '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6. 정답 ③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잦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에서 아이들이 철조망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 ①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②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와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④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7. 정답 ③

지문에서는 면역계의 과민 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해를 끼치는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도둑과 강도의 예시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은 계절 독감, ㉡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 ㉢은 치명적 바이러스, ㉣은 숙주의 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다.

18. 정답 ①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는 주제문이므로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ㄱ) 그 다음은 평균 소득 증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ㄷ), 그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ㄹ). 또한 역사상 1700년대를 미국인들의 초기 정착기라고 볼 수 있고, 남북 전쟁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ㄱ) 다음에 (ㄹ)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ㄴ)의 '그러한 분야'라는 부분을 통해 보았을 때, (ㄹ) 뒤에 (ㄴ)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19. 정답 ④

해당 지문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추론할 수 없다.

- ① 1문단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에서 해당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므로, 한쪽의 의견만 수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이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2문단 '자신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만 찾아냈다.'라는 문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③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므로, 해당 진술을 추론할 수 있다.

20. 정답 ③

㉠에서 몸을 피하는 행위 주체는 유화이고, ㉡에서 알을 내버리는 행위와, ㉢에서 주몽을 없애는 행위의 주체는 금와왕이다. ㉣에서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온 것과, ㉤에서 활을 잘 쏘는 것, ㉥에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하는 것의 주체는 주몽이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③이다.